

흑인유모신화 다시 읽기: 『소리와 분노』와 『가장 파란 눈』을 중심으로

강 지 현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소리와 분노』: 짐 크로우 시대와 흑인유모신화
- III. 『가장 파란 눈』: 흑인유모신화의 현대적 읽기
- IV.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마가렛 미첼(Margaret Mitchell)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 1936)를 바탕으로 한 동명의 영화에 등장하는 스칼렛 오헤라(Scarlett O'Hara)의 흑인유모를 상기해 보자. 혹시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하더라도 육중한 몸매에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두른 흑인유모를 떠올리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는 흑인유모의 이미지가 그만큼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 스칼렛을 압도하는 흑인유모의 육중함은 그야말로 인상적이다. 흑인유모의 육중함이 스칼렛의 날씬함과 (백인여성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흑인유모가 환기하는 이미지는 비단 육중한 몸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흑인유모의 가장 큰 특징은 백인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다(Roberts 53).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흑인유모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오헤라 가문에 헌신한다”(Mitchell 23). 누구누구 아무개라는 이름도 없이 그저 ‘유모’(mammy)라 불리는 흑인유모에 불과하지만, 스칼렛의 흑인유모는 “(오헤라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고용주보다도 높은”(Mitchell 23) 인물로 충성심이 대단하고 늘

행복하다.

흑인유모에 대한 문제의식이자 그 중요성은 바로 우직한 충성심과 헌신, 육중한 몸과 늘 행복해 보이는 만족감 등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흑인유모의 이미지가 현재까지도 아프리카계 미국여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에 의하면 정형화된 흑인여성의 이미지는 크게 흑인유모, 가모장(matriarch), 생활보호대상자모(welfare mother), 창부(whore)로 나뉜다(67-78). 이들 이미지 모두 흑인(여성)의 열등성과 백인(여성)의 우월성을 확립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인종과 성, 계급관계를 고려할 때 흑인유모만이 조금이나마 유일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점이다¹⁾. 이는 흑인유모가 백인(남성)고용주와 흑인여성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척도이자 흑인여성의 행동을 평가하는 일종의 규범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Hill 71). 따라서 흑인유모는 인종과 성, 계급의 삼중 타자로서 바로 이들 범주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들 세 가지 범주를 프리즘처럼 비추는 다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Wallace-Sanders 11-12).

흑인유모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곧 흑인유모신화를 이해하고 재해석하며 나아가 해체하는 출발점이다. 백인(노예주)에 대한 흑인유모의 ‘충성’과 ‘헌신’은 흑인의 열등성과 백인(고용주)에 봉사하는 흑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흑인유모신화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흑인유모신화가 등장하고 확립된 시점과 그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일(Grace

1) 흑인여성의 정형화된 이미지는 백인여성의 이미지와 대척점을 이룬다. 흔히 ‘참된’ 백인여성의 이미지는 (성적) 순수함과 (남성에 대한) 순종에 그 기반을 둔다. 정형화된 흑인여성의 이미지 가운데, 가모장은 여성의 순종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제 사회구조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모는 생식능력만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흑인여성이라는 점에서, 창부는 흑인여성의 과도한 성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흑인유모의 가장 큰 특징이 ‘충성’과 ‘헌신’, 그리고 ‘성과 무관하다’(asexual)는 것임을 고려하면, 가모장과 생활보호대상자모는 ‘실패한 흑인유모’를, 창부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흑인유모’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 이미지는 모두 흑인유모 이미지에서 변형된 것으로 공히 ‘참된’ 여성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흑인여성의 종속과 열등성을 강조한다(Hill 70-78). 성과 무관한 흑인유모의 면모는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다.

Elizabeth Hale)에 의하면, 흑인유모신화는 물론 현재까지 통용되는 미국사회의 인종개념과 인종본질주의는 모두 남북전쟁에서 패전한 미국남부에서 시작되었다(3). 패전한 미국남부의 백인사회는 무엇보다 노예제에서 해방된 흑인과의 인종질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백인지배와 흑인종속을 지속하기 위해 ‘한 방울 법칙’(one-drop rule)이나 흑인법(Black Codes),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²⁾과 같은 흑인차별과 흑백분리정책이 동원되었고, KKK단과 같은 극단적인 인종차별단체의 활동이 강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남부의 백인사회는 남북전쟁 이전 시대를 인종과 종교, 계급이 조화를 이룬 황금시대로 간주하게 되면서 옛 남부에 대한 향수에 젖어들었다. 가족주의 대농장제나 행복한 흑인(happy darky) 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옛 남부 신화’(Old South Myth)와 ‘흑인유모신화’가 확립된 것도 바로 이 즈음이다.

흑인유모신화가 남북전쟁 이전의 옛 남부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흑인유모의 역할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대농장에서 백인 어머니 대신 백인아이에게 젖을 먹여 양육하던 젖어미(wet nurse)였던 흑인유모는 해방 후 백인 중산층 가정의 가정부가 되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바로 옛 남부의 인종질서에 바탕을 두고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함으로써 기존의 인종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것이다(Hale 94-102). 흑인 가정부는 흑인과 백인아이 모두에게 각자 인종에 걸맞은 행동방식, 즉 흑인으로서 그리고 백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종간의 예의’(racial etiquette)는 물론이고 흑백분리문화와 관련된 현실 제반문제를 교육함으로써 인종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흑인 가정부는 백인의 우월함과 흑인의 열등함을 유지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옛 남부의 인종질서를 재생산하게 된다. 인종질서를 재정립하려던 남부의 백인사회는 흑인 가정부의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게 되고, 그 결과 흑인 가정부의 전신인 흑인유모는 신화화된다. 흑백이 철저히 분리되었던 남부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종구분선을 넘

2) 짐 크로우 법의 본래 목적은 흑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Woodward 18). 노예제가 폐지된 후 연이어 흑인 시민권과 투표권이 인정되자 일상생활에서 흑인의 열등성과 백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흑백분리법이 강구되었으며,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는 기치 아래 짐 크로우 법은 점차 확산되었고 1960년대 중반 흑인인권운동이 폭발할 때까지 미국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나들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흑인 가정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흑인유모신화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남북전쟁과 재건기를 거치면서 미국남부에서 형성된 흑인유모신화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흑인유모가 흑인여성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과정은 사뭇 흥미롭다. 흑인유모신화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은 바로 미국사회의 상업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1893년 미국남부 음식을 소개할 목적으로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 처음 등장한 저마이머 아주머니(Aunt Jemima)는 이후 “저마이머 아주머니 팬케이크 가루”(Aunt Jemima Pancake Flour)로 상업화되면서 미국 전역에 유통된다³⁾. 앞치마와 터번을 두르고 환하게 웃는 육중한 저마이머 아주머니의 모습은 흑인유모의 전형적인 모습과 닮아 있다. 엄밀히 말해 흑인유모의 본래 역할이 백인아이를 돌보는 젓어미이고 저마이머 아주머니의 주요 임무는 요리지만, 저마이머 아주머니와 흑인유모의 이미지가 뒤섞이면서 오늘날 저마이머 아주머니는 흑인유모와 종종 동일어로 사용된다(Wallace-Sanders 4). 흑인유모와 저마이머 아주머니는 공히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옛 남부에 대한 향수를 환기한다⁴⁾. 흑인유모와 저마이머 아주머니 모두 백인 주인과 백인 소비자를 위해 “그저 복종하는” 현신적이고 충직한 인물

3) 저마이머 아주머니의 상업화와 대중화는 이 이름이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의 극중 인물에서 유래한 것보다도 무관하지 않다. 민스트럴 쇼가 백인 관객을 위한 오락용 흑인 쇼, 엄밀히 말해 흑인 분장을 한 백인 쇼라는 점을 고려하면 흑인의 몸은 물론이고 열등함으로 정형화된 흑인성 자체가 백인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Hale 151-168).

4) 스테노니스(Anthony J. Stanonis)에 의하면 미국남부의 음식문화는 흑백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짐 크로우 시대 체제 유지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음식 자체는 물론이고 식사법이나 식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백인우월주의를 보호, 유지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미국남부의 백인사회는 소고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와 닭고기, 하천 바닥에 사는 메기, 야콥과 식물인 오크라 등을 흑인음식으로 정해놓고 이들 음식을 폄하했다. “하얀 성”(White Castle)이라는 이름의 체인점 식당과 “검둥이 머리 굴”(Nigger Head Oyster)이라는 상표명 역시 백인의 우월함과 흑인의 열등함을 표방한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KKK단을 창설한 포레스트(Nathan Bedford Forrest)가 오크라를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잡지에 실리면서 백인들도 오크라를 먹기 시작했으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entucky Fried Chicken)이라는 이름의 체인점이 남부의 백인 신사 이미지를 강조한 하얀 조각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백인들도 닭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미국남부의 음식문화가 인종 질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드러낸다(209-215).

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우월한 백인의 “인종적 특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Hale 161, 169).

흑인유모신화의 중요성은 남북전쟁과 재건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흑인유모신화가 현재까지도 흑인여성의 전형으로 인식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흑인유모신화가 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흑인유모신화는 역으로 흑인유모신화를 만들어낸 사회의 일면을 드러내준다. 인종과 성, 계급이 교차하는 결절점에 위치한 흑인유모신화는 미국(남부) 사회의 (이상적) 사회관계를 드러내는 일종의 기호 체계 역할을 수행한다(Wallace-Sanders 105-106). 사회관계가 변화하면 기호 체계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남북전쟁 이후 세계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와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흑인유모신화 역시 변모해왔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흑인유모신화의 형성 배경과 그 변전과정에 주목하면서 흑인유모신화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소리와 분노』(*The Sound and the Fury*, 1929)⁵⁾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가장 파란 눈』(*The Bluest Eye*, 1970)⁶⁾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각기 1920년대 후반 몰락한 남부의 귀족 가문과 1940년대 초반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의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일하는 흑인 가정부 딜시(Dilsey Gibson)와 폴린(Pauline Breedlove)의 모습을 통해 흑인유모신화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자본주의와 소비문화가 가속화되면서 흑인유모신화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흑인유모신화에 간혀있는 이들이 과연 그 신화를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5) Faulkner, William. *The Sound and the Fury*.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90. 이후 본문 인용은 이 판본에 의거하며 *Sound*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쪽수를 병기한다.

6) Morrison, Toni. *The Bluest Eye*.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2007. 이후 본문 인용은 이 판본에 의거하며 *Eye*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쪽수를 병기한다.

Ⅱ. 『소리와 분노』: 짐 크로우 시대와 흑인유모신화

포크너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시인의 목소리는 인간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자 기둥”이라며 시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Harold 212). 20세기 초반, 남부의 귀족 컴슨(Compson) 가문의 몰락을 다룬 『소리와 분노』의 경우 포크너가 강조한 시인의 역할을 하는 인물은 단연 흑인 가정부 딜시이다. 소설 형식의 실험적 기법이 돋보이는 『소리와 분노』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충돌하는 이질적인 목소리가 가득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리와 분노』가 1928년 4월 7일, 1910년 6월 2일, 1928년 4월 6일, 1928년 4월 8일의 순서로 각기 백치 벤지(Benji Compson), 장남 켄튼(Quentin Compson), 차남 제이슨(Jason Compson), 3인칭 화자 딜시의 목소리로 전개되는데, 이들 4명의 화자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전달하는 이야기가 서로 충돌하고 “상호 모순적이어서”(Sound 86) 선행하는 이야기를 뒤엎어 버리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돌하고 파편화된 이미지를 통합하는 목소리가 바로 딜시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928년 4월 8일 마지막 장의 3인칭 화자의 목소리이다. 버튼(Stacy Burton)의 지적처럼 3인칭 화자 딜시의 목소리는 앞서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컴슨 가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221). 무엇보다 딜시는 울음을 쉽사리 그치지 않는 백치 벤지와 노쇠한 안주인 캐롤라인(Caroline Compson), 돈을 둘러싸고 서로 속이면서 암투를 벌이는 삼촌 제이슨과 조카 켄튼(Quentin Compson)⁷⁾을 모두 어르고 어우르는 소위 컴슨 가문의 ‘버팀목이자 기둥’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컴슨 가문이 그나마 가문 몰락이라는 현실⁸⁾, 경제적 쇠락은 물론이고 장남 켄튼의 자살과 알코올

7) 포크너의 작품에는 동명이인이 자주 등장한다. 『소리와 분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제이슨과 켄튼이란 이름만 각각 4명이 등장한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제이슨으로 아버지는 제이슨 3세, 아들은 제이슨 4세가 되며, 제이슨 3세의 장남과 손녀의 이름 모두 켄튼이다.

8) 컴슨 가문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캐디(Caddy Compson)의 혼전 처녀성 상실과 이에 따른 결혼실패에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캐디는 컴슨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낙인찍히고 결국 켄튼의 자살과 아버지 제이슨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중독자 아버지 제이슨의 죽음, 그리고 가족 간 사랑의 부재라는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루에도 여러 번 계단을 “고통스레”(Sound 268) 오르내리는 덜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덜시는 몰락한 검은 가족이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흑인유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충성’과 ‘헌신’임을 고려하면, 덜시의 “고통스럽고도 지독하게 느린”(Sound 268) 움직임은 바로 덜시가 흑인유모의 전통 안에 있음을 드러낸다. 덜시는 “기계처럼 규칙적으로”(Sound 270) 심부름을 시키는 캐롤라인의 부름과 벤지의 울음에 즉각 응답한다. 덜시는 장남 켄튼이 “엄마가 있으면 엄마라고 말할 텐데 [...] 엄마는 지하 감옥 그 자채였어”라고 (Sound 172-173) 되낼 정도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검은 가문 아이들에게 생모 캐롤라인을 대신해 실질적인 어머니 역할을 수행한다. 덜시의 소위 대리모 역할은 벤지와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벤지의 중요성은 벤지가 서른셋이라는 성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신연령이 “삼십년 동안 세 살배기”(Sound 17) 수준에 불과한 백치라는 점이다. 벤지는 백치라는 이유로 본명인 모리(Maury)를 빼앗기고⁹⁾ 조카 켄튼으로부터는 돼지 취급을 당하고 결국 형 제이슨에 의해 잿슨 요양원에 수용된다. 친모인 캐롤라인 역시 모성이 없는 인물이어서 어린 벤지를 안아주거나 벤지나 벤(Ben)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일도 없고 오히려 벤지에게 살가운 캐디를 “지나치게 벤지의 비위를 맞춘다”는 이유로 힐책한다(Sound 63). “[캐롤라인] 마님을 방해하지 않도록”(Sound 57) 벤지의 울음을 억압하느라 전전공공하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벤지를 가장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은 바로 흑인 가정부 덜시이다.

백인아이와 흑인유모의 관계는 흑인유모의 ‘충성’과 ‘헌신’을 가늠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캐롤라인과 덜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친자식과 정서적으로 소원한 백인 어머니와 달리 백인아이와 친밀한 흑인유모의 특징은 바로 인종개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백인성과 흑인성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쌍을 백인 어머니와 흑인유모에 원용한다면, 백인 어머니는 이성과 정신을, 흑인유모는 육체성과 감성을 대변하게 된다. 백인 어머니의 육체를 대신해 백인아이

9) 벤지의 본명은 모리 외삼촌(Maury Bascomb) 이름과 동일한 모리(Maury Compson)지만, 캐롤라인은 백치에게 외삼촌의 이름을 물려주는 것을 친정 가문의 수치라고 간주하고 모리라는 이름을 벤저민(Benjamin)으로 변경한다.

를 어르고 젖을 물리고 사랑이라는 정서를 표현하는 흑인유모의 존재는 소위 ‘신성한’ 남부 백인 숙녀라는 허구적 개념을 지탱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Hale 105). 신성한 남부 백인 숙녀 개념의 핵심은 백인여성의 육체적, 성적 특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캐롤라인에게는 친자식과의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 교감보다 가문의 명예와 순수함이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유모 딜시는 부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백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백인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대리모 딜시와 백인아이와의 관계가 딜시와 친자식과의 관계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월러스-샌더스(Kimberly Wallace-Sanders)의 지적처럼 흑인유모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친자식을 외면할 만큼 백인 아이에게 헌신적이라는 것이다(7-8). 딜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딜시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캐롤라인의 심부름과 요리를 하고 벤지를 돌보는 데 보낸다. 이 가운데에서도 딜시가 가장 중시하는 일은 벤지가 울지 않도록 아들 티피(TP)와 손자 러스터(Luster)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이처럼 elf시의 하루 일과는 친자식에 대한 생모로서의 역할보다는 백인아이와의 대리모 관계에 보다 치중되어 있다. 이상적인 대리모 딜시와 백인아이 벤지의 관계는 두 사람이 흑인교회에서 세고 그 목사(Rev'un Shegog)의 부활절 설교를 듣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들으시오, 형제들이여! 그 날이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기예수님을 무릎에 앉혀 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앉아 있는 저 어린아이들처럼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의 평화로운 노랫소리가, 영광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감는 것이 보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는 죽이려고 왔다! 죽이려고 왔다! 너의 아기예수를 죽이려고 왔다!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모르고 울며 탄식하는 불쌍한 성모 마리아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Listen, breddren! I sees de day. Ma'y setting in de do wid Jesus on her lap, de little Jesus. Like dem chillen dar, de little Jesus. I hears de angels singin de peaceful songs en de glory; I sees de closin eyes; sees Mary jump up, sees de sojer face:

We gwine to kill! We gwine to kill! We gwine to kill yo little
 Jesus! I hears de weeping en de lamentation of de po mammy
 widout de salvation en de word of God! (*Sound* 296)

로마 병사들에게 쫓기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예수의 수난과 고행을 통해 세고그 목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 옛날의 구원의 우유와 이슬”이다 (*Sound* 295). 세고그 목사가 강조하는 “우유와 이슬”은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이를 통해 완성되는 재생을 의미한다(Toker 31-32).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성모 마리아의 고행과 아기예수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사랑이 딜시의 썸 가문에 대한 충성과 벤지에 대한 헌신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아기예수를 보호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벤지를 보호하는 딜시의 모습이 교묘하게 닮았기 때문이다. 로마 병사의 눈을 피해 아기예수를 보호하는 성모 마리아처럼 딜시는 저능아, “정신 이상자”로 규정되어 희롱당하고 배척당하는 벤지를 보호한다(*Sound* 17). 벤지 옆에서 벤지의 무릎에 두 손을 올려놓고 세고그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는 딜시는 마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세고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딜시의 태도이다. 부활절 예배를 위해 모인 회중은 “보통 이하의 작은 키에 불품없는 알파카 코트를 입은 작고 늙은 원숭이”(Sound 273)를 연상케 하는 세고그 목사의 외모에 실망하지만 목사의 설교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설교에 몰입한다. 딜시는 성모 마리아의 수난과 아기예수의 고행에 관한 세고그 목사의 설교에 감화를 받아 눈물을 흘린다. 이는 딜시가 마리아의 수난을 전하는 세고그 목사의 설교에, “소리 자체에 끌려 들어가”(Sound 295) 마음과 마음으로 교감했기 때문이다. 세고그 목사의 “소리 자체에 끌려 들어간” 딜시는 “우유와 이슬”에 관한 세고그 목사의 설교와 하나가 된다. 목사의 설교는 언어와 지시체가 동일했던 태고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내고, 딜시의 모습은 세고그 목사의 설교에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중첩된다. 세고그 목사가 “저기 (회중석에) 앉아 있는 저 어린아이들처럼” 아기예수가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앉아있음을 언급하는 순간, 회중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딜시와 벤지는 곧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와 교묘하게 겹치게 된다. 딜시의 보호 속에 벤지는 울지도 칭얼대지도 않고 딜시 옆에

조용히 그리고 “황홀한 표정으로 앉아서”(Sound 297) 세고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예수를 환기시킬 정도로, 벤지를 위해 헌신하는 딜시는 ‘검은 성모 마리아’(Black Madonna)에 비견될 만큼 이상화된다.

‘검은 성모 마리아’에 비견될 만큼 이상화된 딜시의 모습은 신화화된 흑인유모의 전형적인 면모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흑인유모 신화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로버츠(Diane Roberts) 역시 딜시가 “역사적 순간의 산물”임을 강조한다(58). 단적으로 말해 흑인유모 딜시는 옛 남부에 대한 향수와 신 남부의 불안감을 모두 드러낸다. 이 불안감과 향수는 모두 흑인종속과 백인지배를 근거로 하는 기존의 인종 질서로 돌아가고자 하는 남부 백인사회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흑인은 사람이기보다는 행동양식”이라는 켈튼의 말처럼(Sound 86), 딜시는 일개인이라기보다는 흑인유모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딜시는 늘 칭얼대는 벤지를 배려하고 진실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친자식과의 관계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남편 로스커스(Roskus Gibson)가 사망한 후 아들 버시(Versh Gibson)와 티피는 집을 떠나고 딸 프로니(Frony Gibson)는 사생아를 낳고, 손자 러스터는 반복된 혼육에도 불구하고 벤지를 괴롭힌다. 백인아이에 대한 흑인유모의 충성과 헌신이 친자식과의 소원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직하고 헌신적인 흑인유모로서의 딜시의 가치는 딜시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역누를 때 배가된다(Roberts 62). 이처럼 비록 눈에 띄지도 주목받지도 못하지만 흑인유모 딜시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아이들에게 “정해진 자리”에 따라 그에 걸맞은 인종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이다(Sound 321). 딜시는 “선의 하나님은 (벤지가)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말로 백치 벤지를 끌어안지만(Sound 290), 정작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 딜시는 벤지의 케이크를 먹으려는 러스터에게 “푸주칼로 손을 싹둑 잘라버릴게다”라며 으름장을 놓는 것은 기본이고(Sound 58), 직계 자손을 부를 때에도 이름대신 비속어(nigger boy)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무엇보다 딜시는 직계 자손에게 “네[흑인의] 일이나 신경 쓰고 백인들의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다(Sound 298). 이와 같은 딜시의 태도는 짐 크로우 법의 기본 취지

를 재생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백인의 일에 흑인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백인과 흑인은 차원이 다른 전혀 별개의 족속이고 인종적 위계질서에 따라 “(열등한) 흑인은 (우월한) 백인과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tockett 39). 이는 딜시가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는 말로 흑인의 열등성과 흑백분리원칙을 강조하는 짐 크로우 법을 표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흑백분리와 백인우월주의를 강조하는 딜시의 교육방식은 흑인유모가 옛 남부의 인종질서를 옹호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흑인유모신화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 역사적 산물이라면, 흑인유모신화는 역으로 이 신화를 만들어낸 사회 역사적 정황을 드러낸다. 고정관념, 즉 정형화된 이미지는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 객관적 사회관계를 감추고 속이는데 더 유효하지만(Carby 22), 역으로 정형화된 흑인유모의 이미지를 면밀히 관찰한다면 흑인유모신화의 허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분명 딜시는 충직하고 현신적인 흑인유모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흑인유모신화를 배태한 짐 크로우 시대의 사회 현실과 맞물리면서 그 균열을 드러낸다. 순종적이고 현신적인 딜시의 균열상은 바로 딜시가 벤지를 흑인교회에 데려가는 곳에서 시작한다. 흑인교회에서 딜시와 벤지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예수에 비견될 만큼 이상적인 관계를 드러내지만, 역설적이게도 백인인 벤지를 흑인 교회에 데려가는 것은 짐 크로우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백하게 인종구분선을 “넘는” 딜시의 행위는 ‘순종적이고’ 이상적인 흑인유모의 행위라기보다는 ‘반항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행위이다(Sound 52, 290). 딜시의 위반적 행위는 킴슨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는 제이슨에게 반항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허리띠를 풀 때까지 기다리면 그 때 보여주지.” 나[제이슨]는
허리띠를 잡아 빼며 말했다. 그러자 딜시가 내 팔을 움켜잡았다.

“제이슨 도련님!” 딜시가 말했다. “이봐요, 제이슨 도련님, 창피
하지도 않아요. . . . 그럼 날 쳐요. . . . 누구 치지 않고는 못 배기
겠으면 날 치라구요.”

“You[Miss Quentin] wait until I[Jason] get this belt out and I'll show you,” I says, pulling my belt out. Then Dilsey grabbed my arm.

“Jason,” she says. “You, Jason! Ain't you shamed of yourself. . . . Hit me, den, . . . ef nothing else but hitting somebody wont do you. Hit me.” (*Sound* 184-85)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을 “존중하기를” 바라는 제이슨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조카 퀘틴에 폭력을 행사하고자 한다(*Sound* 278). 제이슨의 폭력으로부터 퀘틴을 보호하는 딜시의 모습은 일견 헌신적인 흑인유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딜시가 고용주에 고용된 고용인 신분으로 언제나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있음을 고려하면, 제이슨에 온 몸으로 맞서는 딜시의 행위는 순종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배반에 가깝다. 이와 같이 흑인유모 딜시에 균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흑인유모신화를 촉발한 사회 현실이 안고 있는 모순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흑인유모신화는 옛 남부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한 산물이다. 그러나 갖가지 신화를 동원하다고 해서 패전한 남부 사회의 현실을, 몰락한 남부귀족의 현실을 말끔하게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옛 남부와 신 남부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배태한 흑인유모신화는 “융합 불가능한”(Roberts 58) 역사적 순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흑인유모신화의 균열은 딜시의 몸에서도 드러난다. 바흐진(Mikhail Bakhtin)은 여성의 몸을 고전적인 신체(classical body)와 기괴한 신체(grotesque body)로 나누어 설명한다. 전자가 부르주아의 신체를 표방한다면, 후자는 민속전승문화의 대중적인 신체를 표방한다. 부르주아의 신체가 그 자체로 “완결된” 이기적인 신체라면, 기괴한 신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신체를 의미한다(Bakhtin 320, 317).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있지만, ‘신성한’ 백인여성과 대척점을 이루는 흑인여성, 특히 흑인유모의 신체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신체를 생성케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기괴한 신체에 가깝다. 이는 흑인유모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흑인성 가운데 하나인 ‘과다한 성욕’을 야예 배제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흑인유모를 “성적 특성을 배제한”(asexual, Hill 72) 육중한 신체에 가두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딜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흑인유모나 저마이며 아주머니처럼 더 이상 욕증하지 않다. 노쇠한 딜시의 얼굴은 “빠다귀가 살 밖으로 비어져 나온 듯” 켈하니 주름이 많고, “축 처진 가슴”에 배 역시 “근육과 조직에 있던 용기와 탄력도 소모되어” 지금은 빠다귀만 앙상하게 솟아있다(*Sound* 266, 265, 265-66). “한 때 몸집이 컸던”(Sound 265) 딜시의 몸이 흑인유모 특유의 욕증함을 잃고 쇠락한 것은 몰락한 킴슨 가문의 현실과 신 남부의 불안감과 무관하지 않다. 거의 모든 재산을 장남 켈튼의 대학교 등록금과 캐디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벤지 뭉의 땅마저 골프 코스로 매도한 상황에서 변변한 마차 하나 없는 킴슨 가문은 현실적으로 몰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고용주의 말에 불복하는 딜시의 태도는 옛 남부의 인종질서로 되돌아가려는 신 남부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처럼 노쇠하고 쇠락한 딜시의 몸은 옛 남부의 인종질서를 회복하려는 신 남부, 나아가 짐 크로우 시대의 욕망과 그 욕망의 불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945년에 출판된 「부록」(“Appendix: Compson, 1699-1945”)에 의하면 한 때 주지사와 장군을 배출했던 킴슨 가문은 사분오열된 채 결국 몰락하고 만다. 이와 달리 “시작과 끝을 보았어”라며 킴슨 가문의 몰락을 목도한 딜시는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낸다(*Sound* 297).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포크너가 「부록」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인내했다”(They endured, 215)는 사실 그 자체이다. 로버츠의 지적처럼 ‘인내하다’는 것은 ‘수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실한 의미의 저항이나 반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66). 바로 이 지점에서 딜시의 한계가 노출된다. 일면에서 딜시는 인종구분선을 넘고 제이슨에 대항함으로써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흑인유모신화에 저항해보지만 이들 모두 소극적인 저항에 그치고 결국엔 제이슨의 뜻을 수용함으로써 “흑인유모의 뒷”에 갇히고 만다(Wallace-Sanders 122). 벤지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썩은 보호소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도 제 손으로 키운 제이슨에게 숙절없이 해고를 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록」에서 포크너는 “1933년, 제이슨 킴슨이 흑인들로부터 킴슨 가문을 해방시켰다”(213)는 표현으로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에 견주어 제이슨의 딜시 해고선언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흑인(유모)에 대한 백인(고용주)의 고압적 태도와 함께 흑인(유모)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낸

다. 딜시의 한계는 흑인유모에 대한 포크너 자신의 양가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포크너는 자신의 흑인유모 캐롤라인 바(Caroline Barr)의 “무한한 헌신과 사랑”(Roberts 53)을 긍정하면서도 캐롤라인의 장례식에서 대농장주/고용주처럼 행동하는데, 이는 옛 남부에 대한 향수와 짐 크로우 시대의 불안감이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딜시와 더불어 흑인유모신화도 당시의 불안한 사회 역사적 상황을 ‘인내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백인 고용주/지배층에 대한 흑인(유모)의 충성과 헌신은 흑인유모신화에 갇힌 채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강화된다.

Ⅲ. 『가장 파란 눈』: 흑인유모신화의 현대적 읽기

모리슨은 예술가의 임무를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거나 오래된 사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는” 것에 둔다(Harding 112). 모리슨이 많은 작품에서 상투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이를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는 것은 바로 모리슨의 이와 같은 예술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파란 눈』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모리슨은 이 작품에서 정형화된 흑인여성의 이미지를 재해석하고 재평가한다. 흑인유모 이미지는 『가장 파란 눈』에 등장하는 흑인여성을 분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재해석 내지 재평가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상투적이면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흑인여성의 이미지가 바로 흑인유모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1940년대 초반의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를 배경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가장 파란 눈』은 남북전쟁 후에 만들어진 흑인유모신화가 짐 크로우 시대에 남부를 넘어 어떻게 북부에 전파되고 확산되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더불어 『가장 파란 눈』이 1970년에 출판되었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짐 크로우 시대가 종언한 상황에서 어떻게 흑인유모신화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모리슨은 『가장 파란 눈』에서 백인처럼 파란 눈을 갖고 싶어 하는 평범한 흑인소녀 피콜라(Pecola Breedlove)의 비극적 삶을 통해 흑인사회 내부의 문제를 노정한다. 모리슨이 흑인과 백인의 관계보다 흑인사회 내부의 문제, 즉

내부의 시선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흑인으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흑인(사회) 자체의 의식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3인칭 전지적 화자와 더불어 성인의 클로디아는 물론 9살 클로디아(Claudia MacTeer)의 시각에서 피콜라와 그를 둘러싼 흑인사회의 태도를 전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클로디아가 직접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쉬쉬하며”(Eye 5) 엿듣게 된 어른들의 비밀스런 대화를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은 마치 흑인사회의 문제를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하게 제시하는 것과 같아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11살에 불과한 피콜라가 친부 찰리(Cholly Breedlove)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결국엔 정신분열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상황은 매우 극단적이지만, 모리슨은 이 비극의 배경에 피콜라의 가족은 물론이고 백인우월주의를 내면화한 흑인사회 전체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 가운데 흑인의 열등함과 백인의 우월함에 기반을 둔 인종개념과 인종주의를 내면화함으로써 내적인 식민 상태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피콜라의 생모 폴린(Pauline Breedlove)이다. 폴린은 자신의 가족보다도 고용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흑인 유모신화에 갇혀있는 정형화된 흑인유모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엌에 서서 자신의 업적을 살펴보는 것은 그녀[폴린]의 즐거움이였다. 폴린은 몇 십 개나 되는 비누, 얇게 저민 베이컨, 반짝반짝 빛나는 냄비들과 팬들, 광택을 낸 마룻바닥을 마음껏 즐겼다. “우리는 절대로 폴리를 내보내지 않을 거야. 어디서 폴리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어. 폴리는 모든 것을 정돈하기 전까지 부엌을 나서는 법이 없어. 정말로 폴리는 이상적인 가정 부야”라는 말을 듣는 것도 큰 기쁨이였다.

It was her[Pauline's] pleasure to stand in her kitchen at the end of a day and survey her handiwork. Knowing there were soap bars by the dozen, bacon by the rasher, and reveling in her shiny pots and pans and polished floors. Hearing, “We'll never let her go. We could never find anybody like Polly. She will *not* leave the kitchen until everything is in order. Really,

she is the ideal servant.” (*Eye* 128, 원문강조)

피셔(Fisher) 가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폴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고용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다. 폴린의 ‘충성’과 ‘헌신’은 부역을 정리 정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피셔 가의 딸을 친자식보다도 헌신적으로 돌보는 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자리에”(*Eye* 128)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내의 인종과 계급질서를 수용하는 것으로, 백인 고용주에 대한 폴린의 ‘충성’과 ‘헌신’은 “자신의 집과 아이, 남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Eye* 127) 것으로 이어진다. 소위 “이상적인 가정부”로서 폴린의 면모는 폴린이 블루베리 파이에 다리를 댄 친딸 피콜라보다 어질러진 마룻바닥과 옷을 버린 피셔 가의 딸의 안위를 먼저 걱정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폴린은 “씩은 사과조각 같은 말을 퍼부으며” 피콜라를 손찌검하지만 백인아이에게는 “달콤한 말로” 위로한다(*Eye* 109). 이렇듯 “이상적인 가정부”로서 고용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정작 자신의 가정과 자식을 외면하는 폴린의 모습은 그녀가 철저히 흑인유모신화에 함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폴린이 흑인유모신화에 함몰된 것은 폴린이 백인의 가치체계를 수용하고 이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백인의 가치체계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정신을 육체의 상위 개념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체계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잔 모하메드(Abdul JanMohamed)의 마니교적 원리(Manichean allegory)를 원용하면(82), 폴린이 내면화한 가치체계는 백인의 우월성과 흑인의 열등성을 전제로 하는 백인성과 흑인성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모리슨이 『어둠 속의 움직임』(*Playing in the Dark*)이라는 평론집에서 언급한 것처럼, 흑인성은 “무능하고 철저히 종속되어 생명이 없는”(33) 부정적인 것 일체를, 백인성은 이와 정반대로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흑인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백인성만을 미국적인 것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이 병행했다는 것이다(*Playing in the Dark* 9). 이를 원용하면 폴린이 ‘이상적인 가정부’의 덕목으로 간주하는 “아름다움과 질서, 청결함”(*Eye* 127)은 바로 백인성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인종개념을 내면화한 폴린은 가난에 찌든 자신의 가족과 집을 멀리한 채, “보다 섬세하고 사랑스럽고”(*Eye* 127) 화려한 것으로 가득한 피셔가를 동경하고 그 안에서 ‘이상적인 가정부’라는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된다.

폴린은 열등한 흑인성과 우월한 백인성 개념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 흑인으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을 부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파농(Frantz Fanon)은 『검은 피부 하얀 가면』(*Black Skin, White Masks*)에서 피식민지인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설명을 한다. 파농에 의하면, 흑인의 정체성은 백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백인이 주입한 열등 콤플렉스를 내면화할 경우 흑인은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경멸하게 되고 중국에는 스스로를 백인으로 간주하게 된다(ix-x). 폴린의 정체성 형성과정 역시 피식민지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흑인으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폴린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상적인 가정부’ 역할에서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폴린은 소위 백인을 흉내 냄으로써 흑인으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을 잊고 스스로를 백인 고용주 피셔와 “동일시”하게 된다(*Eye* 122). 폴린은 피셔가의 물건을 구매할 때면 사소한 결함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폴린은 아주 조금이라도 변색된 부분이 있거나 손질이 깔끔하지 않은 고기는 절대 구매하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는 생선을 다짜고짜 생선장수의 얼굴에 던져버리곤 한다. 이처럼 폴린이 가난한 흑인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엄두도 내지 못할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상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이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폴린 자신의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피셔가를 “대표하기”(*Eye* 128) 때문이다. 폴린은 스스로를 피셔라는 백인 고용주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흉내 냄으로써 피셔가의 권력에 다가간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비록 거짓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긍정하기 위해 폴린은 더더욱 피셔가의 ‘이상적인 가정부’ 역할에 함몰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이상적인 가정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폴린은 현대판 흑인유모의 전형적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흑인유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백인) 고용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주요 역할이 백인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인종주의를 재생산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제럴딘(Geraldine) 역시 ‘또 하나의’ 현대판 흑인유모라고 볼 수 있다. “갈색 피부의”(*Eye* 81) 흑백혼혈인 제럴딘은 폴린과 마찬가지로 백인의 우월함과 흑인의 열등함에 기반을 둔 인종개념을 내면화한

인물로 흑인과 관련된 일체의 특성을 모두 거부한다. 폴린처럼 ‘아름다움과 질서, 청결함’을 중시하는 제럴딘에게 흑인성은 “불결하고”(Eye 92) 따라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남편과 사랑을 나눌 때에도 최대한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Eye 84) 주의하며 땀이 나는 것도 혐오할 정도로, 제럴딘은 자신의 집을 흑인성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세계”로 만들고자 한다(Eye 84). 이처럼 ‘또 하나의’ 흑인유모로서 제럴딘의 면모는 그녀가 기존의 인종질서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들[갈색 피부의 소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와 교대에 가서 백인남성을 위해 세련되게 일하는 법을 배운다. 백인남성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정경제학을 배우고 흑인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학을 배우며 . . . 처신하는 법을 배운다. 검소와 인내, 고결한 도덕관 그리고 예절을 배워나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급함을 없애는 것이다. 열정이라는 무서운 저급함, 본성이라는 저급함, 광범위한 인간 감정의 저급함을.

They[Brown girls] go to land-grant colleges, normal schools, and learn how to do the white man's work with refinement: home economics to prepare his food; teacher education to instruct black children in obedience . . . how to behave. The careful development of thrift, patience, high morals, and good manners. In short, how to get rid of the funkiness. The dreadful funkiness of passion, the funkiness of nature, the funkiness of the wide range of human emotions. (Eye 83)

제럴딘이 받은 교육의 핵심은 백인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다. 서구사회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권력관계를 수반한다(Harding 98). 가정경제학이건 교육학이건 세부 전공과는 무관하게 모든 공교육의 핵심은 기존의 인종과 성, 계급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에 있다. 그 결과 공교육은 백인/남성에 대한

흑인/여성의 ‘충성’과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백인남성가부장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조한다. 무엇보다 공교육을 통해 미국사회가 공공연하게 설파하는 가치는 단연 백인성이다. 백인성은 도덕적이고 예의바른 것을 충칭하는 것으로 아름다움, 나아가 미국적인 것과 동일시된다. 백인성의 가치는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으로 옹호된다. 반면 열정이나 감정, 인간본성에 가까운 것들은 저급하고 열등한 것으로 정의되어 배제된다. 이분법적인 가치체계에 따라 이들 저급한 것들이 흑인성을 함의하는 것은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미국사회내의 모든 교육은 옛 남부의 인종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은 흑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가정부’가 되기 위해 친딸의 고통까지 외면하는 폴린처럼, 제럴딘 역시 “(품격 있는) 유색인종과 (저급한) 흑인의 차이”(Eye 87)에 집착하여 후자와 관련된 일체의 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과정에서 아들 주니어(Louis Junior)와 정서적으로 교감하지 못한다.

흑인유모는 백인 고용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통해 기존의 인종정체성을 재생산한다. ‘이상적인 가정부’라는 이름의 현대판 흑인유모 폴린과 ‘또 하나의’ 현대판 흑인유모 제럴딘 역시 열등한 흑인성과 우월한 백인성 개념을 재생산한다. 폴린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꼴사납고 (가난한) 아버지처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고 (백인 중산층의) 아름다움과 품격이라는 가치를 주입한다(Eye 128). 제럴딘은 자신이 받은 교육을 그대로 아들에게 답습한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의 교육 역시 열등한 흑인성과 우월한 백인성에 입각한 인종정체성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고등교육을 받은 제럴딘과 달리 폴린의 경우 인종개념과 그 가치를 배운 곳이 바로 극장이라는 것이다. 영화를 통해 폴린은 백인 중산층의 대표 가치인 ‘품격’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할 것과 증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운다(Eye 122). 사랑해야 할 것이 품격 있는 백인성을, 반면에 증오해야 할 것은 바로 저급한 흑인성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폴린이 영화를 통해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를 배우고 또 이를 수용하는 것은 미국사회 안에서 기존의 가치체계를 재생산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인종과 성, 계급의 위계질서에 대한

교육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간판이나 영화 그리고 모든 시선을 통해”(Eye 39)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리와 분노』와 『가장 파란 눈』에서 흑인유모신화가 재생산되는 방식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물론 두 작품의 배경이 각기 1920년대와 1940년대라는 점에서 20여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이 모두 짐 크로우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소비제품이 넘쳐나는 『가장 파란 눈』은 1940년대 미국사회가 현저하게 소비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소비사회의 특징은 교환경제체제에 있고 교환경제체제에서는 인간의 노동력 역시 교환가치로 평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폴린은 ‘이상적인 가정부’가 되고자, 백인성의 경계 안쪽에 편입되고자 한결같이 노력하지만, 백인 고용주 피셔의 시선에 폴린은 그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 “부동산을 파느니 폴리가 만든 블루베리 파이를 파는 게 낫지”라는 피셔의 칭찬은 폴린이 블루베리 파이와 같은 상품으로 물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폴린은 피셔 가족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폴리(Polly)라는 애칭을 얻는다. 그러나 폴리라는 애칭은 피셔라는 백인 고용주가 명명이라는 행위를 통해 폴리라는 “명명된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타자화하고 고립시키는”(Benston 152) 행위에 불과하다. 결국 폴린은 백인(성)에 순종한 대가로 오히려 타자화되고 자아가 축소된다(Rigney 44).

자본주의가 가속화된 소비사회에서 흑인유모신화의 변전상은 폴린의 몸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기괴한’ 흑인유모의 신체는 특유의 육중함에서 덜시의 노쇠한 신체로, 폴린의 “기형적인”(Eye 110) 신체로 재차 변화한다. 두 살 때 녹슨 못을 밟아 생긴 기형적인 모양의 발과 절룩거리는 걸음걸이, 극장에서 사탕을 먹다가 이빨이 빠진 폴린의 모습은 소위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에서 멀어 보인다. 그 결과 폴린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경멸”에서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백인성을 옹호하게 된다(Eye 122).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역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역사적 산물이지만, 폴린은 백인사회가 규정한 아름다움, 곧 백인성만을 아름답다고 간주하고 이에 집착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폴린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그 기형적인 신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에서 비롯한다는 점이다. 폴린은 ‘추함’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마치 자신이 “순교자적 고통”을 떠안은 것처럼

행동하지만(*Eye* 39), 기실 폴린의 ‘추함’은 백인우월주의에 입각한 인종개념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것과 관련이 있다(*Eye* 41). 결과적으로 폴린의 기형적인 신체는 그녀가 흑인유모신화에 완전히 함몰되어 이를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소리와 분노』와 『가장 파란 눈』 사이에 흑인유모신화의 재생산 방식이 다른 것은 시간적 차이 외에도 남부와 북부, 엄밀히 말해 중서부라는 지역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우선 짐 크로우 시대의 남부사회는 철저하게 흑백이 분리되었던 곳이다. 덜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컴슨 가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되도록 백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 역시 잊지 않는다. 그 결과 덜시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흑인가족과 백인가족을 이어주고 이 두 개의 가족이 남북전쟁 패전의 후유증을 견뎌낼 수 있는 기둥이자 버팀목 역할을 한다. 반면에 1940년대 초반의 오하이오 주는 보다 산업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소비사회로 흑백이 공존하는 곳이다. 시골 남부 출신인 폴린이 백인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북부의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백인과 서로 왕래할 일이 없었던 남부사회와 달리 “옆집과 아래층, 거리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있는 백인”의 존재는 폴린에게 그야말로 낯선 환경일 수밖에 없다(*Eye* 117). 여기에 남부사회에 비해 흑인의 수도 적고 서로 멀리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폴린의 외로움은 가중된다. 무엇보다 폴린의 상황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백인만큼이나 비열한”(*Eye* 117) 북부 흑인들의 존재이다. ‘저급하다’는 이유로 폴린의 외모와 발음을 비웃으며 북부의 흑인들이 “백인만큼이나 비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들이 백인사회가 주입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폴린 역시 가족과 공동체와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영화감상으로 해소하면서 주류 백인사회의 가치관을 받아들인다. 거리감을 잃지 않았던 덜시와 달리 폴린은 흑인의 열등성과 백인의 우월성을 근간으로 하는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는 폴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덜시에게 흑인교회는 목사와 신도가, 신도와 신도가 부름과 응답의 형식으로 서로 교감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면, 폴린에게 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징벌의 종교를 의미한다. 폴린이 “구세주 그리스도”보다 “심판자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

하는 것은 모두 남편 찰리의 저급함을 단죄하기 위함이다(*Eye* 42). 그 결과 흑인사회와 백인사회를 이어주는 딜시와 달리 폴리는 보다 철저히 자신의 가족을 외면하고 백인 고용주 가족에 ‘충성’하고 ‘헌신’한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Eye 160) 엄마 폴린은 자신의 남편이 딸 피콜라를 두 번이나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도 외면하는 “잔인하리만큼 추한”(Eye 38) 존재이다. 모성도 없이 오로지 백인 고용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라는 ‘이상적인 가정부’ 역할에만 몰두하는 폴린은 마룻바닥에 떨어진 블루베리 파이처럼 언제 운명이 다할지 모르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현대판 흑인유모 폴린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점은 흑인유모신화가 현대 소비사회에 접어들어 다시금 변전했음을 시사한다. 옛 남부의 인종질서를 회복하려는 욕망에서 흑인유모신화가 등장한 이래, 딜시가 그 욕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면, 폴린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정치학을 드러낸다. 단적으로 말해 (백인) 고용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흑인유모신화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착취 현실을 은폐한다(Hill 72-73). 소위 ‘이상적인 가정부’ 폴린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주변부적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Eye* 17). 딜시나 폴린 모두 고용주의 변심에 따라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폴린의 경우엔 그 위협이 보다 심각하다. 딜시가 흑인과 백인사회를 이어주는 일종의 ‘버팀목이자 기둥’으로서 제이슨도 쉽사리 해고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폴린은 그 가치가 떨어질 경우, 즉 고용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해고될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술주정뱅이 남편 찰리와 헤어질 경우에만 밀린 임금 11달러를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폴린의 첫 번째 고용주의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폴린과 같은 고용인은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인) 고용주의 명령에 더더욱 순종할 수밖에 없다. 딜시의 세계에 존재했던 온정의 경제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러한 사회구조 안에서 (백인) 고용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흑인유모신화는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IV. 나가는 말

모리슨은 「포크너와 여성」(“Faulkner and Women”)이란 글에서 포크너의 장점을 “시선을 피하지 않는 접근법”(a refusal-to-look-away approach, 297)이라고 강조한다. 다수의 포크너 작품은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정지한 채 매달려있는 듯”(Absalom, Absalom! 182) 보인다. 이는 실패로 끝난 남북전쟁을 정당화하려는 남부사회의 강박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포크너는 옛 남부의 사회질서와 남북전쟁을 정당화하는 대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달려있는 인물들의 실상을 외면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시선을 피하지 않는 접근법’은 모리슨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모리슨은 많은 작품에서 인종개념과 인종주의의 허구성과 그 위험성을 고발한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작품에는 공히 ‘수치스럽고’ ‘말 못할’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포크너의 『내려가라, 모세야』(Go Down, Moses)에서처럼 흑인노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또다시 성적으로 유린하는 백인 노예주의 이야기며, 모리슨의 『사랑받는 사람』(Beloved)에서처럼 노예제가 없는 안전한 곳에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흑인여성의 이야기 등이 그 러하다.

콜린스의 지적처럼 흑인여성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67). 이는 기존의 인종과 성, 계급질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할 목적에서 흑인여성의 이미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흑인여성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이용되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흑인여성이 취약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정형화된 흑인여성의 이미지 가운데 흑인유모는 흑인여성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는 흑인유모가 인종과 성, 계급의 삼중타자이면서 이 세 개의 범주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흑인여성 이미지라는 점 때문이다. 정형화된 흑인유모의 이미지나 흑인유모신화는 미국사회를 다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형화된 이미지, 즉 고정관념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여부를 떠나 모두 인종주의의 산물이다(Christian 16). 더불어 정형화된 이미지는 인간을 비인간적인 존재로 축소한다(Christian 16). 따라서 흑인유모의 정형화된 이미지나 흑인유모신화를 연구

하는 것은 역으로 비인간적인 존재로 축소된 흑인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배사회가 만들어 놓은 인종개념이나 인종주의의 허구성을 밝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흑인 유모신화 연구가 열린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흑인유모신화가 특정 시대의 사회역사적 산물로 태어났음에도 고정되어있지 않고 사회 역사적 정황에 따라 변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백인 고용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흑인유모신화는 본래 옛 남부의 인종질서를 회복하려는 욕망에서 태동하여 그 이후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작동방식과 재생산 방식이 끊임없이 변전해왔다. 이렇듯 변전을 거듭하면서도 흑인유모의 정형화된 이미지와 흑인유모신화가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점은 흑인유모신화 연구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파란 눈』의 “꿈에서나 나올 법한 황갈색 피부의”(Eye 62) 흑백혼혈 모린(Maureen Peal)은 ‘또 하나의’ 현대판 흑인유모 제럴딘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모린은 백인 중산층 가정의 여아를 대표하는 셸리 템플(Shirley Temple)처럼 옷을 입을 만큼 부유하다. 모린이 “학교 전체를 매혹하고”(Eye 62) 동경의 대상이 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은 기실 흑인에 대한 봉사를 거부하는 백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이처럼 흑인임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모린은 백인사회의 가치관을 수용함으로써 흑인의 열등성과 백인의 우월성을 긍정한다. 클로디아와 프리다(Frieda MacTeer) 자매, 피콜라를 향해 “나는 귀여운데, 너는 못생겼어!”라며 조롱을 퍼붓는 모린의 태도는 흑인과 관련된 일체의 것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럴딘의 태도와 닮아있다(Eye 73). 따라서 모린이 선사하는 흑인의 경제적 성장 가능성은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인종주의와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흑인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은폐하는 “가짜 봄”에 불과하다(Eye 64). 흑인유모신화의 목적이 백인(고용주)에 대한 흑인의 충성도에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흑인의 노동착취라는 현실을 은폐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흑인유모신화는 작금의 다문화 자본주의 사회에 여전히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인 용 문 헌

- Bakhtin, M. M. *Rabelais and His Worl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Benston, Kimberly W. "I Yam What I am: The Topos of Un(naming) in Afro-American Literature." *Black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y*. Ed. Henry Louis Gates, Jr. New York: Methuen, 1984: 151-172.
- Burton, Stacy. "Benjy, Narrativity, and the Coherence of Compson History." *Cardozo Studies in Law and Literature* 7.2 (Autumn-Winter, 1995): 207-228.
- Carby, Hazel. *Reconstructing Womanhood: The Emergence of the Afro-American Woman Noveli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Christian, Barbara.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1985.
- Collins, Patricia Hill.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1991.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Trans Richard Philcox. New York: Grove, 2008.
- Faulkner, William. *The Sound and the Fury*.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90.
- _____. *Absalom, Absalom!*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90.
- _____. "Appendix: Compson, 1699-1945." in *The Sound and the Fury*. New York: Norton, 1994: 203-215.
- Hale, Grace Elizabeth. *Making Whiteness: The Culture of Segregation in the South, 1890-1940*. New York: Vintage, 1999.
- Harding, Wendy and Jacky Martin. *A World of Difference: An Inter-Cultural Study of Toni Morrison's Novels*. London: Greenwood

- Press, 1994.
- Harold, Brent. "The Value and Limitations of Faulkner's Fictional Method." *American Literature* 47.2 (1975): 212–229.
- JanMohamed, Abjul R.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ist Literature."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78–106.
- Mitchell, Margaret. *Gone with the Wind*. New York: Scribner, 1964.
- Morrison, Toni. *The Bluest Eye*.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2007.
- _____.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New York: Vintage, 1993.
- _____. "Faulkner and Women." *Faulkner and Women*. Ed. Doreen Fowler and Ann J. Abadie.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86: 295–302.
- Rigney, Barbara Hill. *The Voices of Toni Morrison*.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91.
- Roberts, Diane. *Faulkner and Southern Womanhood*.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4.
- Stanonis, Anthony J. "Just Like Mammy Used to Make." *Dixie Emporium: Tourism, Foodways, and Consumer Culture*. Ed. Anthony J. Stanoni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8.
- Stockett, Kathryn. *The Help*. New York: Berkley, 2009.
- Toker, Leona. *Eloquent Reticence: Withholding Information in Fictional Narrative*. Kentuc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3.
- Wallace–Sanders, Kimberly. *Mammy: A Century of Race, Gender, and Southern Memo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8.
- Willis, Susan. "Eruptions of Funk: Historicizing Toni Morrison." *Black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y*. Ed. Henry Louis Gates, Jr. New York: Methuen, 1984: 263–283.

Woodward, C. Vann. *The Strange Career of Jim Cro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Abstract

Rereading Mammy Myth in *The Sound and the Fury* and *The Bluest Eye*

Jihyun Kang

After the Civil War an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many white Southerners had a fear of losing their masterhood over ex-slaves, so it was extremely urgent to find a new way to craft new racial orders such as culture of segregation, mammy myth, and Old South myth. These entire methods to keep blacks in their 'place' were throughly entrenched, establishing white superiority as the American way following the Jim Crow Era.

Mammy myth must be read as an historically and culturally produced code that is situated within specific material conditions and is interactive with the complicated problems of class, race, and gender. The mammy figure and its symbols are linked to America's racial consciousness. It is undeniable that mammy was 'invented' after the Civil War as part of the Lost Cause mythology, so mammy's character is linked to the 'happy slave' mythology of the antebellum South. Mammy's stereotypical attributes – infinite patience, implicit acceptance of her own inferiority and her devotion to white children – point to a long-lasting confluence of racism, sexism, and southern nostalgia. More importantly, mammy is a multi-faceted prism used to illuminate a continuous spectrum of American views and attributes about racial hierarchy. As a free woman working as a servant in a white family, the mammy character Dilsey Gibson in William Faulkner's *The Sound and the Fury*, is largely associated with the care of

white children. Dilsey who stands between the white home and the culture of segregation embodies the continuity between the Old South and the new southern world. As a modern version of mammy, an ideal servant Pauline Breedlove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also embraces and affirms her inferiority. Her unprecedented devotion to her white employer reflects her racial inferiority and leads her to internalize white superiority and lose her true self. Both Dilsey and Pauline show why mammy myth was established and how it continues to influence American concepts of race and gender.

Key Words: The Sound and the Fury, The Bluest Eye, Mammy, Mammy Myth, Jim Crow Era

소리와 분노, 가장 파란 눈, 흑인유모, 흑인유모신화, 짐 크로우 시대

논문접수일: 2014.1.26

심사완료일: 2014.2.16

게재확정일: 2014.2.23

이름: 강지현

소속: 한성대학교

주소: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40, 503-804호 (반포동, 반포미도2차 아파트)

이메일: junokang@hotmail.com

